

방주에는 1 등실이 없듯이

방주는 지중해 크루즈가 아니다. 오로지 생존을 목적으로 지어진 방주 안에 암수 일곱 혹은 두 쌍씩 짐승들이 실려 있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곰들은 겨울이 아닌데도 잠을 자고 사자들이 금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요동치는 방주 안에 짐승들은 이리 저리 밀려 다니며 괴성을 질렀을 것이고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흔히 교회를 방주에 비유하는데 이런 면도 꼭 참고하기 바란다. 방주 안이 쾌적하지 않았듯이 교회 안도 그다지 쾌적하지는 않다. 당신을 불쾌하게 하고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인물들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곰과 사자가 잠들지 않고 식욕에 충실했듯이 그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착실하게 감당했을 것이다. 당신이 싫어하는, 혹은 불편해하는 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거나 대표기도를 하고, 혹은 설교자가 되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설교를 할 수도 있다. 그래도 기억해라. 살 수 있는 곳은 방주 안 밖에 없듯이, 교회 역시 그렇다는 것을. 방주 안에 1 등실이 없듯이 교회도 그렇다.

홍수 이후 달라진 것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가인의 후손들만이 가축을 길렀다.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의 아들 아다가 처음으로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치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애완용일리는 없고 단지 털이나 젖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므로 가인의 후손들은 이미 육식을 했을 것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 창세기 4:20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여전히 고기를 먹지 않았고 노아도 이제까지 짐승을 죽여 고기를 먹어본 일이 없었을 것이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 짐승을 지으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홍수 이후 식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 있었다. 짐승을 피째 먹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 창세기 9:4-5

짐승을 죽여 먹을 수는 있으나 피를 먹지 말아야 했다. 피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짐승을 잡아 피째 먹음으로써 짐승이 가진 힘 또는 영혼까지 소유하려는 의식이 있었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 인육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 사람의 힘과 영혼,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행위는 우상종교나 주술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피째 먹지 말라 하시며 피흘림의 대상을 짐승만이 아니라 사람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범죄 이후 인간이 갖게 된 잔혹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홍수 이후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었다. 육식이 허락되었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가 떠올랐다. 죄로 인한 심판이 있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 하나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홍수로 온 지면을 씻어내고 이전 세대의 죄를 씻어낼 수는 있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자체, 죄성은 씻어지지 않았다.

죄는 여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셨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노아와 그 아들들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자 조상으로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 창세기 9:1**